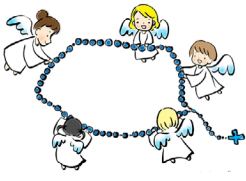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14주일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정한조, 정지연 막달레나의 가정을 위하여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7월의 성인

- 7/4: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 7/5: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 7/6: 성녀 마리아 고레티 동정 순교자
- 7/11: 성 베네딕도 아빠스
- 7/15: 서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 7/22: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 7/25: 성 야고보 사도
- 7/26: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7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7.9(토) 오전 11:30

7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7월 평협회

- 일시 : 7.24(주일) 교중미사 후

지난주일 영명축일 행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	217	165	287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이재혁 바오로
차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정연숙, 장남순, 박동희
차주	박정자, 김경돌, 이은미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26	62명	372불	390불
박동희, 정연숙, 박희영 (총 3세대)			



겨자씨만한 믿음
마 13:32

연중 제14주일,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6년 7월3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고귀한 첫 번째 사제가 순결한 피를 흘린 한국 교회는, 순교 신앙을 이어 오며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온갖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다 가신 신앙 선조들의 후손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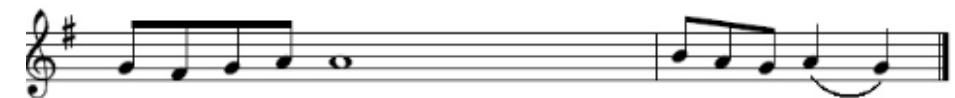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17-22)

제 1 독서 :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18-22

<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마태 23,35 참조). >

화 답 송 :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22

<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

세 마

“환난에 넘어가느냐, 이겨내느냐”



진리를 위해 사는 이들의 삶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의인들의 고통에 관해 노래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을 기뻐하는 오늘 봉독하는 독서와 복음 말씀도 한결같이 참된 진리이신 하느님을 찾는 의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독서에서 즈카르야는 임금과 유다 대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들이 현세의 권세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발견되는 현실입니다. 1독서는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2역대 24,22)

화답송으로 읽은 시편 31장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둔 의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의인들은 주님만이 참된 목숨을 지켜주시는 바위요 성채이심을 믿기에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통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만이 삶의 피신처입니다.

의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자신이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2독서에서 봉독한 로마 5,1-5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들의 믿음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의인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줍니다.

물론 희망이 있다고 해서 눈앞의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마태 10,17)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희망을 지니고 산다하더라도 환난은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환난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마지막 갈림길은 환난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환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이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성령께서 모두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 곧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환난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순교의 화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신부님의 모범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환난을 앞에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순교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 앞에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과 역경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사, 희망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 하느님께 청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예수님을 심판한 대사제 카야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자 점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사제인 카야파는 서둘러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제거할 계락을 꾸밀 때 카야파는 무엇이 라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45-50

최고 의회에서 카야파는 한 사람을 희생하여 나라 전체를 살리자는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카야파는 이미 대사제의 직분을 잃고 스스로 정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진리보다는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만을 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합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 51-57

군대와 그 대장과 유대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한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한나스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문하던 한나스는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고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8, 12-24

카야파가 예수님을 제거할 계락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는 이미 대사제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우선해서 진리를 배척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나쁜 목적을 미리 상정하고 행동하는 회의 분위기에서는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더 극렬하고 무조건적으로 행동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를 두려워하며 침묵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최고 의회의 결정은 카야파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야파와 당시의 유대 최고의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 묵상

간절함

느님!
어째서 저 작은 촛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들아!
저 촛에는
기도하는 이의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 15:27)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